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미경 前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미경 前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이미경 前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진행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자 합니다. 우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기관성격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기본
원칙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한국국제협력단 12대 이사장(2017.12~2020.11)
제15~19대 국회의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미경 이사장 🇰🇷 KOICA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 기관입니다. 1991년 설립돼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무상원조’라는 말이 더 알려져 있지만 일방적으로 도와준다는 ‘원조’보다 상호발전, 상생번영의 의미를 담은 ‘국제 개발협력’으로 바꿔 부르는 추세입니다. KOICA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모두 이룬 한국의 독보적인 경험을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KOICA의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과 인도주의 실현 등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된 기본정신이지만 이를 압축하면 2015년 유엔이 채택한 SDGs가 됩니다. 이에 따라 KOICA는 SDGs 정신을 반영해 기관의 미션을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으로 설정했고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지구환경(Planet)이라는 4P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행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개발협력 사업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현재의 상황과 2021년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이사장 🇰🇷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남이 안전하도록 도와야한다’는 점도 분명해졌구요.

다행히 ‘K-방역’이 보여주듯 한국은 모범적인 방역 성과를 냈고, 이를 지켜본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에 ‘도와달라’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KOICA는 △마스크, △진단키트, △이동형 음압기 제공과 전문가 파견은 물론 개도국의 보건 시스템 정비와 생계 지원까지 다각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G20 특별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국제협력을 선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KOICA 업무의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이 일상화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봉사단을 해외로 파견하거나 개도국 관계자를 한국에 초청해 연수하는 사업은 종전대로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봉사단, △온라인 연수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사람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현지 전문가들을 활용해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도 꽤 이뤄졌습니다. 로컬 NGO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구요.

2021년에는 이런 경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디지털과 그린)’과도 접목해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강화 등을 도울 예정입니다. ‘못 사는 나라에 무슨 디지털이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편-전신-유선전화-무선전화

단계를 거친 한국과 달리, 많은 개도국은 우편-무선전화로 직행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있구요. 기후변화 역시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도 가장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입니다.

진행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개발협력 당사국으로 현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이미경 이사장 ♣ KOICA는 개발도상국 44곳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개발협력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주재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동구·CIS, △중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호응해 해당 지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KOICA가 40여개 공공기관과 힘을 합쳐 설립한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국사협)’을 통해서 신남방 대상국인 베트남 등을 상대로 공동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신북방 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에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방역 전문가를 파견해 확진자 수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교육, △공공행정, △보건의료, △농림수산 등에서 중점 사업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KOICA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팔레스타인, 케냐, 가나, 콜롬비아 등에 지원한 병원시설은 올해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활용돼 환자치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KOICA가 양성한 역학조사관들이 감염병 확산저지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중점분야는 그것대로 지속하면서 SDG 5, 13, 16에 해당하는 양성평등, △기후환경, △인권·평화·민주주의 등에도 관심을 더 기울이고자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을 전파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요, KOICA는 분쟁취약국의 자립을 돕고 개도국 주민들이 토지이용권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깨우치도록 전문가(grass-root justice defender)를 양성하는 사업 등을 펼치면서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 사업 담당자들이 성평등 원칙을 통합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그 기준이 결과에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미경 이사장 ♣ KOICA는 ‘여성을 변혁의 주체로 양성한다’는 기치 아래 지난해 ‘Fill the GAP 이니셔티브’를 발족했습니다. 소외·취약계층 여성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

고, 근본적인 성불평등 원인을 없애며 국제사회와 공동사업 발굴을 통해 성인지 정책·이행 역량을 키워간다는 접근법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젠더기반폭력 예방(동티모르), △농촌 여성 경제적 역량강화(케냐), △여성 누공 치료(obstetric fistula)와 예방사업(코트디부아르) 등의 사업이 UN Women, UNDP, 세계은행과 같은 글로벌 파트너 참여 속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평등 원칙을 통합하는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젠더마커(gender marker)'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사업이 성평등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젠더마커 1~2점을 부여하는 체계인데요, KOICA는 지난해에 비해 마커 부여 사업이 3배나 증가한 61건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젠더마커 기준이 사업의 '발굴·기획' 단계에서 성평등 관점 적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자연스레 성평등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KOICA 이외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부처·공공기관에서 받은 젠더마커 실적이 저조해 전반적인 한국의 순위는 OECD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개선해가야 할 요소입니다.

진행자 개발협력 당사국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평등 원칙 등을 통합하고자 할 때에 문화적 갈등에 직면할 경우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경 이사장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네팔에서 생리 중인 여성은 불결하다는 이유로 가축우리에 가두거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계속 자행되는 여성성기절제(Female genital mutilation) 관습이 그러합니다. 이런 악습이 근절되어야 하는 '여성 인권의 문제'로 다뤄지려면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려면 현지에 풀뿌리 기반을 둔 단체와 협력이 없이는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NGO와 공공기관,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인식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KOICA는 젠더 관련 사업을 발굴할 때 현지 기관과의 협업과 더불어 인식개선 문제는 제도정착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소 4~5년의 기간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SDG-5 성평등 달성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 그리고 유해한 관습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행자 이사장님이 부임하신 이래 한국국제협력단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더불어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생활 균형에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미경 이사장 📍 아시다시피 2017년 11월 제가 취임할 당시 KOICA에 대한 신뢰는 여러 모로 많이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국민의 비판과 가혹한 평가로 직원들의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원칙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Back to Basics)’으로 정했습니다.

기본과 원칙이란 다름 아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된 기본정신과 목표를 말합니다. 우리는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 실현, △협력대상국과 경제협력관계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합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지구환경(Planet)이라는 4P를 지향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2017년 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최하위(E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2단계 상승한 보통(C등급)을, 올해 또 2단계 상승한 최우수(A등급)를 받아 큰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혁신에 앞장서서 노력해준 임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생활 균형은 제가 이사장으로서 주안점을 두었던 방향 중 하나입니다. 취임 당시 KOICA는 이미 여직원의 육아휴직제도,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갖춰져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임신·출산·양육을 여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가정 양립을 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하고, △실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제도 완비를 위해 「임신·출산·양육·가족돌봄」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이 이뤄지도록 △자동 육아휴직(One-stop 제도), △육아기 단축근로, △직장 어린이집 운영, △연차축진제 도입, △근무시간이후 PC-off제 등을 도입했습니다. 조직문화 변화와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전사 가족친화제도 교육, △위킹 맘&대디 간담회, △일·생활 균형 캠페인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대비 남성 육아휴직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연차사용률은 100% 달성, 초과근무시간은 40% 감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가정과 일이 슬기롭게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진행자 📍 이사장님은 시민운동 20년, 국회 의정활동 20년,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님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고, 3년의 임기를 다하신 시점에 있습니다. 각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사장님 스스로는 마음에 자부심으로 남는 역할,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요?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경 이사장 🗣 제 입으로 ‘공이 많다’고 말하기는 어렵구요(웃음). 지난 40여년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평등, △차별반대, △인권옹호, △평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활동했고,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손에 꼽을 수 있는 성과로는 가부장제의 악습인 ‘호주제’를 폐지한 것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론화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OICA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젠더’ 이슈를 범분야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토대를 놓은 점도 뿌듯합니다. 거의 모든 사업영역에 젠더 요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 = 여성만 혜택’이 아니라 ‘성평등 = 인권’의 관점으로 봐야합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性別)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KOICA가 많은 개도국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을 펼치는 이유는 여성 1명이 △딸, △아내, △엄마로서 △생활비를 벌고,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자녀의 교육까지 담당하는 1인 3역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지원하는 것이 3배, 4배의 승수효과를 낸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젠더 관련 사업이 많이 발굴되고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행자 🗣 청년, 여성과 남성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경 이사장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평등’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남성 대 여성’의 대립이나 갈등구도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권은 공기와 같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사람으로서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나중에 내 인권이 짓밟힐 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성평등(젠더)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진행자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기획·기록·정리 : 기획실무팀